

불자 세상보기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행정대학원장)

독일의 울리히 벡은 자신의 저서 <위협사회>에서 현대사회가 산업화와 근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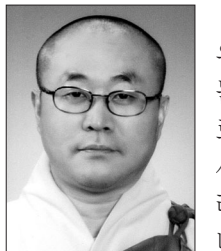
올리히 벡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같은 독일의 볼프강 조프스키는 <안전의 원칙>이라는 자신의 저서...

발언대

경제논리에 몰살 않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경제논리를 앞장세운 개발열풍에 몰살을 앓고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원이 되지 못하는 핵연료 사용을...

원전 확대, 인류 생명 빼앗는 행위



장명선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20세기 들어서 우리 인류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했다. 이 우라늄은 엄청난 에너지...

으로 사용되었으나, 주변의 모든 인간과 생명체를 말살하는 잔인성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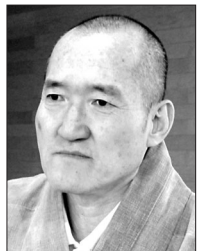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뿐만 아니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원자력발전소의 핵사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능 위험은 앞으로도 수백 년 간 지속될 것이다.

핵폭탄과 핵사고의 위험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위험은 핵발전소가 폐쇄 주변에 내뿜는 방사성 물질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발전과 화력발전이라는 구시대적 방식을 추구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외면하고, 핵발전소의 개수를 현재의 24개에서 앞으로 약 40개로 증가시킬 계획을...

“설악산 파괴를 정부가 앞장서다니”



범승선
불교사회 정책연구소

8월 28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안을 찬성...

한 사업안에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승인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국립공원 제도가 시작된 지 올해로 48년이다. 그동안 국립공원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공원개발 요구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한 끊임없는 요구와 크고 작은 생채기속에서도 지난 48년 간 우리의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서의 명맥과 빛을 잃지 않아 온 것은 국립공원 관리를 책임졌던 지난 소임자들의 양심과 우려가 뒷받침 되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소임자들(국립공원위원회)이 집요한 개발요구를 받아들일 줄 몰라서, 조건을 달 줄 몰라서, 혹은 개발할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예산을 지원받을 줄 몰라서...

국립공원은 강원의도, 양양군의 것도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인 기간 동안 국정을 위임 받은 위정자들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아울러, 영산 설악을 지키기 위해 불교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각 불교단체에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일에 모두 함께하기를 바란다.

주지 자리 貪心 언제 끝나려나

8월 31일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이 벌어졌다. 용주사 최대 문중인 전강문도회가 예고한 임시총회를 막기 위해 용주사는 산중진입을 막았다.

결국 전강문도회 임시총회는 보류됐고, 문도회장인 정호 스님은 용주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현장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용주사 중진 비상대책위원회가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기물 파손과 용주사 측 스님 한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용주사는 현 주지 선거에서 한 차례 잡음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용주사의 가장 어른인 송담 스님이 탈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란이 인구에 회자되는 상황이다.

조계종은 교구본사 주지 선출 과정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반목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2~3년 간 교구본사 주지를 놓고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왔다.

이런 모습에 가장 상처를 입는 것은 불자들이다. 지난 8월 대종공사에 모두 토론에 참석한 한 재가불자는 이렇게 말했다.

“승가 사이에서도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가자들은 ‘승가 내부의 자정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승가의 신뢰 회복이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의 첫 걸음이다.”

조계종 성보박물관協 발족 환영한다

진관사 경내에서 출토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던 진관사 성보 280여점이 돌아왔다.

그동안 사찰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국가귀속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석탑과 불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2월 매장문화재 제도 개편은 이러한

희망의 신호탄이었다. 향후 불교계는 문화재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성보박물관협회의 국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사업은 그동안 박물관 내에 잠들어 있던 성보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조명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보박물관협회의 설립을 담은 옛 선조들의 흔적이다. 이를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과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도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